5월 31일(월) / 잠 16-18

▶ 내용요약 : 잠언 16장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다. 지혜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3절)"고 교훈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지만 교만한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심을 가르쳤다. 한편 17장은 미련한자에 대한 잠언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혜자는 미련한 자의 특징(다툼, 사악한 입술, 지나친 말, 거짓말, 마음이 굽은 자, 뇌물 등)-과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교훈했다. 이어서 18장은 미련한 입술과 지혜로운 입술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미련한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입술은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이다.

▶ 질문 :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16장)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 )을 감찰하시느니라"

▶ 생각하기 :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자.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로마서 12:1-2을 읽으라)

6월 1일(화) / 잠 19-21

▶ 내용요약 : 잠언 19장은 18장에 이어서 가난과 재물에 대한 교훈 및 그 가운데에서 택해야 할 지혜로운 삶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사회와 가정에서 갖추어야 할 지혜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장은 언어를 삼가야 한다는 것과 신뢰를 바탕으로 물건을 사고팔아야 함을 교훈했다. 한편 21장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교훈했다. 특별히 3절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얼마나 이를 중요시 여기시는지 강조했다.

▶ 질문 :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19장)

"( )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리라"

▶ 생각하기 :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쥔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 생명을 얻으려고 또는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늘 지혜자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6월 2일(수) / 잠 22-24

▶ 내용요약 : 잠언 22장은 재물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 지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재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지혜자는 사회적 정의를 언급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 한편 23장은 음식과 관련된 지혜로운 태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술 또는 포도주에 대한 지혜가 필요함을 역설했는데, 그 이유는 술 취함이 방탕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4장은 악인의 형통함과 불의한 세상에 대한 지혜자의 대답이다. 지혜자에 의하면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 그들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장래가 있으며, 그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질문 :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23장)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 )하라"

▶ 생각하기 : 세상에는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6월 3일(목) / 잠 25-27

▶ 내용요약 : 잠언 25장부터 솔로몬의 세 번째 잠언이 시작된다. 지혜자는 왕과의 질서(1-3절), 신하들을 위한 교훈(4-15절), 일상생활에서의 지혜(16-28절)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한편 26장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의 패망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27장은 일상에 대한 교훈과 친구와의 우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양 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마음에 두어 보살피는 부지런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교훈했다.

▶ 질문 :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25장)

"은에서 ( )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 생각하기 : 지혜자는 우리에게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하게 여길 것을 교훈하고 있다. 사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혼자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분명 우리에게는 믿음의 친구 또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시기를,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자.

6월 4일(금) / 잠 28-31

▶ 내용요약 : 잠언 28장은 물질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이유 없이 학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한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사람이 굽게 행하는 부유한 사람보다 낫다. 한편 29장은 의인과 악인을 계속적으로 대조하면서 지혜의 길을 따르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전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을 교훈했다.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으로, 지혜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것을 가르쳤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 질문 :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28장)

"자기의 죄를 숨기자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 )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 생각하기 :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의 길을 따르지만, 미련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여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짐을 기억하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마태복음 10:24-33을 읽으라)

6월 5일(토) / 전 1-3

▶ 내용요약 : 전도서 1장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나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다. 심지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해짐을 이야기했다. 이로 인해 전도자는 쾌락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자는 즐거움 또한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 또한 헛된 것임을 말했다. 3장은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음을 말하면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하고 있다.

▶ 질문 :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3장)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 )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 생각하기 : 전도자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심지어 지혜조차도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것을 통해 헛되고 무의미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독자들을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6월 6일(일) / 전 4-6

▶ 내용요약 : 전도서 4장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충격적인 말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수고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다시금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도 친구의 의미는 여전히 큰 것이었다. 이에 전도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다. 또한 5장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교훈하면서, 서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즉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6장에서 전도자는 앞으로의 일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를 보여주면서, 헛된 생명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전도자에 의하면, 인간은 한치 앞도 모른 채 살아가면서 무의미한 것을 더할 뿐이다. 결국 전도자는 무엇이 즐거움인지를 누가 알며,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지를 질문하면서 독자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 질문 :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쓰시오. (5장)

"네가 하나님께 (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
하시나니 ( )한 것을 갚으라"

▶ 생각하기 :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생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